‘여수항 미래 100년’ 실행계획 윤곽 사람과 공존하는 해양복합관광거점

단기 8개 등 19개 과제…기념사업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여수항 개항 100년을 맞이해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의 윤곽이 그려졌다.

여수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항 개항 100주년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중장기 11개·단기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용역사는 ‘사람과 공존하는 해양 복합관광거점 여수항’을 미래 비전으로 수립하고, 6개월간 100인 시민추진위원, 자문단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중장기 11개 과제와 단기 8개 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1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수항 개항 100주년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권오봉 여수시장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중장기 과제로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과 가막만 일원을 해양레포츠·해상교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요트, 보트 상시 운영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

사후활용이 지지부진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들의 근거리 관광 수요를 채우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국제 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도 실행해야 할 일로 꼽았다. 시설 리모델링과 대형 쇼핑센터 유치 방안도 제시했다.

또 신항~신북항 진입도로 확장과 국동항~여수구항 연결도로 개설과 같은 관광기반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수제선 정비와 시민 친화형 항만친수시설(워터프론트)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단기과제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2023년 4월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민소망 카드가 담긴 타임캡슐 매설(2123년 개봉)과 기념목 식수, 어린이 글짓기 및 그림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추진이 제안됐다.

신항, 신북항, 구항 3개소에는 여수항 스토리가 담긴 포토존을 설치하고 여수 개항 100주년 소공원을 조성해 상징 발판을 제작하는 등 20~30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핫플레이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믿고 귀농 하세요”

군, 농업인 교육 최우수기관 선정…체류형교육·실습·창업 지원

구례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21년 신규농업인 교육 평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류심사와 발표점수를 통해 성과 확산과 교육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 영농기초교육, 현장실습 지원,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운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해온 귀농·귀촌 사관학교다. 매년 35가정이 10개월간 체류하면서 개인 텃밭을 가꾸며 농기계 사용법과 작물 재배 등 총 34회 136시간의 단계별 맞춤형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2020년까지 운영결과 107가구 126명이 수료했고 66세대 103명이 구례군에 정착했다.

영농기초교육은 지리적인 특성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작목인 양봉과 버섯 과정에 53명 대상 12회의 이론과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농업인대학은 선도 인재 양성반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54명을 대상으로 아스파라거스, 열대 과일나무 등 6개 분과에 25회 교육했다.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선도 농가로부터 직접 배우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사전설명회, 연수약정서 작성, 안전공제 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2019년부터 19명이 현장실습 교육을 완료, 교육 기간 종료 후에도 선도 농가와 협의해 사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귀농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은 껍질째 씹어 먹는 조이스킨 배 하우스 재배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스토어 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과 지원을 추진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다.

또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마을에 있는 빈집을 새로 단장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1개소를 조성해 빈집정비와 인구 늘리기 등의 효과를 거뒀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제1회 보성 키위축제 성료

‘대한민국 키위 1번지’ 기치를 올리며 보성군이 처음으로 마련한 ‘제1회 보성키위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온·오프 라인에서 동시에 치러진 보성키위축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15만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기간 키위가 단일 과일로 5000 박스(2kg)가 판매돼 약 8000만원의 수익도 창출했다. 영암~순천 간 고속도로 보성녹차휴게소에서 선보인 판매장에서는 2300여 박스를 판매하기도 했다.

보성군은 올해 처음으로 키위 출하 시기에 맞춰 ‘대한민국 키위 1번지 보성! 그 시작을 알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키위 축제를 개최했다.

임상철 보성키위축제추진위원장은 “처음으로 개최하는 축제였지만 큰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더 나은 축제를 준비하겠다”며 고품질 보성키위 생산을 약속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키위는 보성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 보성키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보성키위를 보성녹차를 잇는 새로운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키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보성군은 1981년 처음으로 재배하기 시작해 40년 넘는 동안 얻은 선진 농법을 통해 명품 키위를 생산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2022 전남체전 성화대’ 제막

순천만 갯벌·두루미 날갯짓 상징…제61회 체전 150일 앞으로

2022년 제61회 전남체전이 1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순천시는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의 붐업 조성과 29만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팔마체육관 종합운동장에서 성화대 제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은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이상대 순천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화대 동판 제막 및 시험점화 등이 진행됐다.

새로운 성화대는 21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을 위해 순천시의 이미지에 맞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순천의 모습을 담았다.

성화대의 S자 문양은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생태와 갯벌의 힘찬 물줄기를 상징하며, 두루미의 날갯짓 문양은 서로 화합하며 힘차게 비상하는 순천인의 기상과 순천시의 미래 비전·발전상을 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성화대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2년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순천시가 전국적인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2022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팔마종합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순천시가 팔마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새로 조성한 성화대. 〈순천시 제공〉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방한용품·김치…곡성 곳곳서 온정의 손길

연말을 맞아 곡성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기업체를 비롯해 개인 등 곳곳에서 방한용품과 반찬 등 기부품이 전달되고 있다.

곡성에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호 대표는 지난 18일 방한용품 장갑 77켤레를 기부했다. 〈사진〉

김 대표는 1년여 동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매월 음료수를 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집을 찾아 안부 확인 활동도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전달한 장갑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곡성 옥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난방쿠폰과 김치를 전달했다. 협의체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탈락가구, 실직가구를 직접 방문해 20만원 상당의 난방쿠폰을 지급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새암복지재단과 연계해 고령층과 장애인 15가구에게 김장김치를 10㎏을 후원했다.

옥과면 청년회 10명은 오는 27일 연탄 봉사에 나설 예정이며 경로당 등에 쌀과 과일을 기증할 예정이다.

또 대한한돈협회 곡성군지부는 지난 16일 저소득층을 위해 한돈 500㎏을 기탁했다. 한돈협회 곡성군지부의 기탁은 올해 세번째이며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 250가구에 전해졌다.

독거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해 고장난 곳을 수리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도 올해 25번째 활동을 펼쳤다. 단체는 농기계 수리부터 칼 갈이, 이동빨래방, 전기안전점검, 취업상담, 통합사례관리 상담, 방역소독, 주택소방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피쉬데이㈜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FISHDAY 피쉬데이 싱싱한 약속 피쉬데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이너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탑차 납품/배송) 1톤 냉동탑차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